

고흥군 행정력 빛났다…합동평가·공약 이행 ‘역대 최고’

국가 위임사무·국가보조금 사업·국가 주요 시책 등 90% 이상 달성
공약 이행, 2년 연속 전국 최고…사업비 등 1억7500만원 인센티브

고흥군이 ‘2025년 정부합동평가(2024년 실적)’와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전남도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고흥군이 역대 최초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

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고흥군은 정량평가 부문 84개 중 82개 지표를 달성하며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정성평가 부문은 16개 지표 중 15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이번 종합 1위 성과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포상금 2500만원, 총 1억7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5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도 공약이행평가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2024년 말까지의 공약 이행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지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전체 100개 공약 중 65%를 이행하며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평균(53.0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2024년 목표 달성도 분야에서도 전국 평균(92.55%)보다 높은 99%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합동평가와 공약이행평가에서 연이어 최고성과를 거둔 것은 평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적극 행정을 강조해 온 공영민 군수의 리더십과 민선 8기 동안 산업·경제, 복지, 농수산업, 환경, 안전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갈고닦은 행정역

량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1400여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값진 성과”라며, “대외적으로 입증된 고흥군의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발판 삼아 남은 임기 동안 군민 행복과 고흥의 변화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탄탄하고 수준 높은 행정력을 기반으로 군정과 군민이 서로 소통하며 ‘고흥 인구 10만 달성’의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정기명 여수시장 “소중한 한표 행사합시다”

SNS·전광판 등 대선 투표 독려

정기명 여수시장이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고자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20일 개인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투표는 힘이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합시다”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시민 사회단체에서 개인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이 투표 참여 분위기에 적극 동

참할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주요 지점 54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481곳과 27개 읍·동 민원실, 이순신광장,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에 투표 참여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시청 통화연결음을 투표 안내 음성으로 바꾸고 공동주택과 마을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대선 사전투표소 11곳서 모의시험

곡성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내 1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투표 모의시험은 19·21일에 이어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의 출력, 정전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 상황 대처 등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군은 이번 모의시험을 통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까지 지역 주민 주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마을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

구례군, 발로 뛰는 ‘청정 으뜸마을 만들기’

본황 등 1년차 마을 5곳 현장 컨설팅…주민 참여 확대안 등 제안



구례군이 지난 19일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년 차 마을 중 5개 마을(본황, 봉동1구, 상위, 달전, 내온)에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사진】**
이번 컨설팅에서는 전라남도·외부 전문가·구례군 사업담당자가 직접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마을 고유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 방향을 논의해 실질적인 해답을 얻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이장은 “막연했던 부분이 명확해졌고,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라남도 주관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은 3년간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가정의 달 ‘이해와 소통’을 노래하다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24일 문화예술회관서 합창음악극

광양시는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주현)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4시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4회 정기 연주회 ‘아빠의 꿈’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기획된 합창음악극이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베베린’, ‘상어가족’ 등 다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안전성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으며, 바리톤 전태현이 아빠 역할로 출연해 공연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인다.
공연은 평소 서먹했던 아빠와 딸이 엄마가 자리를 비운 1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서서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풀어

내는 합창단원들의 밝은 에너지와 아름다운 목소리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잔잔한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매 없이 전석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이 진행된다. 공연 시간은 약 60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 7월 창단 이후 광양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 바닷가 작약 꽃밭길. 고흥군 영남면 우암마을의 작약꽃밭이 만개한 꽃과 남해 쪽빛바다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순천시, 흑두루미 쉬어 갈 무논 10곳 조성

순천만 람사르길 따라 총 6ha
생태·웰니스 관광 활성화 기대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 람사르길 인근 농경지에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무논 10개소, 총 6ha를 조성했다.
‘무논’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물을 채워 유지하는 논 형태로 습지, 갯벌이 만조로 잠길 때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쉼터와 먹이터를 제공하는 생태 기반 시설이다.
시는 이번 무논 조성이 흑두루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계절에 따라 순천만을 찾는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를 확장하고 종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무논은 세계적인 탐조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람사르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철새 서식지 보전은 물론 탐조 중심의 생태관광과 더불어 웰니스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순천만 람사르길은 연안과 내륙 람사르 습지를 연결하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생태탐방로로, 걷기 명상과 치유 경험을 원하는 웰니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물을 채워 유지하는 논 형태의 무논습지.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이번 무논 조성을 계기로 생태자원 보전과 생태·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습지 보전과 지역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람사르 습지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

맞게 순천만의 생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습지관리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로,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계절마다 찾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돕고 마음 나누고

남도사랑봉사단·새마을회 등
자원봉사자 20명 현장 파견

보성군은 지난 16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 20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긴급 복구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보성군을 비롯한 강진군·광양시 등 3개 시·군에서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고추 지주대 설치 작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보성군에서는 남도사랑봉사단을 비롯한 보성군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 소속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해 현지 농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파견된 보성군 자원봉사단이 현장에서 고추 지주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나누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위해 온기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재난 봉사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